

탐방객 많은 사찰 쓰레기 배출량 3배

조계종 '사찰 쓰레기 처리...' 조사서 드러나

발우공양할 때는 고춧가루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음식물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 때문이다.

쓰레기가 별로 배출되지 않을 것 같은 사찰. 그런데 일부 사찰의 쓰레기 발생량이 일반 가정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찰 쓰레기의 많은 부분을 탐방객들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종이 사찰의 친환경적 생활과 생태사찰 만들기 일환으로 발간한 '사찰쓰레기 처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대책마련 연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총 25개 사찰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사찰 상주인원에 의한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일반 가정(1040g)의 55%정도였다. 25개 조사대상 사찰의 하루 평균 상주인원은 51명, 탐방객은 530명이다. 일반쓰레기발생량은 3만9385g,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 1만8039g, 재활용쓰레기발생량은 1만8419g 등으로 하루 평균 전체 쓰레기발생량은 7만5890g이다. 그러나 탐방객의 영향이 많은 6개 사찰의 쓰레기 발생량은 3111g으로, 일반가정보다 3배 많았다.

양산 내원사의 경우 지난해 전체

쓰레기 발생량 4만7280kg 중 내원사 자체의 상주인원에 의한 쓰레기 발생량(6085kg)은 12.9%에 불과했다. 나머지 87.1%는 탐방객에 의한 쓰레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원사는 지난해 5210만원을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에 따라 종단에서는 사찰 쓰레기 처리를 위해 △사찰 쓰레기 관리 지침서 개발 및 보급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재의식 및 재문화 정립 △사찰 내 쓰레기 관련 시설 개선·정비 △사찰 경내 쓰레기통 개발 및 보급 △사찰 소임자 교육 △탐방객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종단 외부적으로는 △유류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탐방객 쓰레기에 대한 지원 및 협조방안 강구 △탐방객에 대한 상시적인 홍보와 계몽 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스님은 "환경위원회를 통해 '사찰 쓰레기 관리 지침서' 발간하는 한편, 정부 등과 탐방객에 의한 사찰 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강원교육 학제개편 등 '변화' 모색

조계종 교육원 올 중점사업 발표...간화선·종단사 세미나도

조계종 승가교육에도 시대적인 변화를 수용한 프로그램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1월 31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 서비스 개선, 승가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을 포함한 올해 중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원의 2007년 중무계획은 관리행정을 탈피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교육의 질 향상, 수행승

가 구현을 위한 불교학 연구 등을 팔자로 16개 분야별 사업으로 짜여졌다. 여기에는 교육관계법령을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 제·개정하고 기본교육기관 공통교과목 개발, 각 사찰 소임자들의 직능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교육원의 올해 계획안은 기본교육기관인 강원 교육에 대한 변화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관심을 끌었던 해인사 강원외 학제개편과 관련해, 교육원은 전통 강원원 전체 교과목에 대한 전반

적인 점검을 통해 발전방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승가교육 강화도 올해 계획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교육원은 분말사주지연수교육과 승랍 10, 20, 25년차를 각각 대상으로 한 불교지도자연수 등의 기간을 늘여 사회변화에 맞춘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각 사찰 소임자 스님들을 대상으로 신도교육을 위한 '간화선 실참수행 향상과정' 연수를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16개 사업

가운데 간화선 세미나와 종단사 세미나를 올해 핵심사업으로 분류했고, 기본교육 공통교과목 개발, 선원청규 편찬, 금강경·반야심경 통일 한문·한글본 편찬, 분말사주지연수 등 5가지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 밖에도 청암사 비구니율원 설립, 동학사 비구니학림 설립, 불학연구소의 학술진흥재단 등록, 율원령 제정 등도 눈여겨 볼만하다.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시대적인 변화를 승가교육에 수용하는 등 내적인 변화를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선암사 사태 '원만 해결' 태고종 전국종무원장 협의

태고종은 1월 29일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를 갖고 대화합 속에서 선암사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무원장 운산 스님, 선암사 전임주지 금용 스님, 후임주지 승조 스님, 선암사 수습대책위원장 원명 스님, 종회회장 인공 스님, 각 시·도교구 종무원장 및 총무국장 스님 등이 참석했다.

선암사 전임주지 금용 스님은 "방장 스님을 중심으로 선암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후임주지 승조 스님도 "최대한 협조해 선암사 문제를 조속히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선암사 주지선출을 및 운영에 관한 문제는 선암사 수습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으며, 재적승은 제3의 인물로 주지를 선출하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포교사 조직정비·전문화 "직접 관리"

조계종 '전문포교사 선발...'령 제정...신행·문화 등 분야별 선발

'전문포교사선발및관리에관한령'이 1월 30일 조계종 중무회의를 통해 제정됐다. 지난해 1월 입법예고를 한 뒤 1년만이다.

전문포교사령은 사문화돼왔던 전문포교사 제도 시행을 통해 포교사 조직을 재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시를 통해 8000여명의 포교사가 배출됐지만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4500여명이며,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포교사는 2700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500여명은 회비는 내고 있지만 활동은 미비한 상태다. 포교원은 영 제정으로 전문인력을 형성한 뒤 종단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영에 따르면, '전문포교사'란 일반포교사로서 3년 이상 전문포교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인정된 자

중에서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자격을 획득한 자를 말한다. 전문포교사가 되기 위해선 포교원에서 설립한 포교사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전문포교사는 '신행지도전문포교사(어린이·청소년·청·장년·직장·직능 및 군·경·교도소, 교육 및 수행 포교분야)' '문화예술전문포교사(불교문화해설, 출판·인터넷, 예능·스포츠 포교분야)' '사회·복지전문포교사(환경·평화·인권 및 통일, 자원봉사·복지, 법률·의료 및 상담 포교분야)'로 구분된다.

전문포교사 선발기준으로는 △팀장 이상(중앙, 지역단의 임원의 경력이 있는 자 △스태비 완한 자 △분야별 연수 80% 이상 참석자 △포교활

동 보고서 80% 이상 제출자 △사정위원회 면접 평가 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자 등이다.

그러나 기존 포교사와의 특성화 및 차별화와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배정, 어린이 지도사 등 각 분야 지도사와의 변별력, 응시자격 폭 축소 및 확대 등 보완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포교원 한 관계자는 "세부적인 시행규칙 제정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총지종 원승 통리원장 취임

불교총지종은 1월 29일 서울 역삼동 총지사에서 제15대 통리원장 원승 종사 취임식을 개최했다(사진). 원승 종사는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형평과 기준이 살아있는 총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승단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참고하여 총무행정에 반영할 것이며 상생과 화합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총지종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다양'

총지종이 종조 원승 성사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올해 학술세미나와 전국 찬불가대회를 열고, 명상용 CD를 배포한다. 또 창종 35주년을 기념해 시장대회, 독경 및 진언연승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총지종은 1월 29일 총지사 원정대행사 기념관에서 제100주년 종조탄신기념 '종조탄신대제'를 봉행하고, 기념사업의 본격 추진을 다짐했다.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은 종

조탄신기념대법회를 비롯 명상이나 요가 수행 등 여러 수행법 개발에 접목이 가능한 종조법설집 명상용 CD 및 테일 제작 배포 등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기념사업의 대중성 제고를 위해 종조유품전 및 사진전, 종조탄신기념 예술제, 합창제 또는 전국찬불가 경연대회(독창, 중창, 합창부분) 등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종조유고집 <유마경>

지관스님 재가종책특보에 김영국 씨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2월 2일 김영국 前 법보신문 기자(사진)를 종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총무원장 종책특보에 재가불자가 임명된 것은 매우 이례



적인 일이다. 김영국 종책특보는 한나라당 부대변인, 한나라당 불교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영국 종책특보는 "불교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해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 제시함으로써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봉영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원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6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관람료 사찰 실태조사 벌이기로

조계종과 정부는 2월 1일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국립공원내 22개 사찰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조계종측 부·실장 4인, 각 부처 및 정부측 국·처장급 8인으로 제도개선협의회를 공식 가동시키고,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국립공원과 문화재에 대한 제도 전반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2007년도 어린이법회 개설 사찰 접수공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는 어린이포교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법회 개설을 원하는 사찰 및 법회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찰을 위하여 어린이법회 개설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어린이법회 개설 사찰과 법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찰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1. 어린이법회 지원 사찰의 기본 요건**
 - (1) 조계종 등록 사찰(공찰 우선 지원)
 - (2) 어린이 20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매주 1회 어린이법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찰
 - (3) 어린이법회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1인을 확보한 사찰
- 2. 제출서류**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www.buddhism.or.kr)

 - (1) 신청서
 - (2) 어린이법회 운영 기본계획서
- 3. 신청 일시 및 방법**
 - (1) 접수기간 : 2007년 2월 5일(월) ~ 2007년 2월 20일(화)
 - (2)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이메일 송부 필수)
 - (3) 주 소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2층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 (4) 결과발표 : 개별연락 및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
 - (5) 문 의 : 어린이청소년팀 (직통 02-2011-1904 / young3933@buddhism.or.kr)
- ◆ 신규 및 운영사찰의 혜택**
 1. 신규 및 운영사찰에 대한 개설지원팀의 협조
 2. 신규 및 운영사찰에 포교원 및 산하단체에서 제작한 포교관련 자료 우선 제공
 3. 신규 및 운영사찰에 어린이지도자 연계 및 여름, 겨울 불교학교 지원 혜택 우선 제공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혜 총